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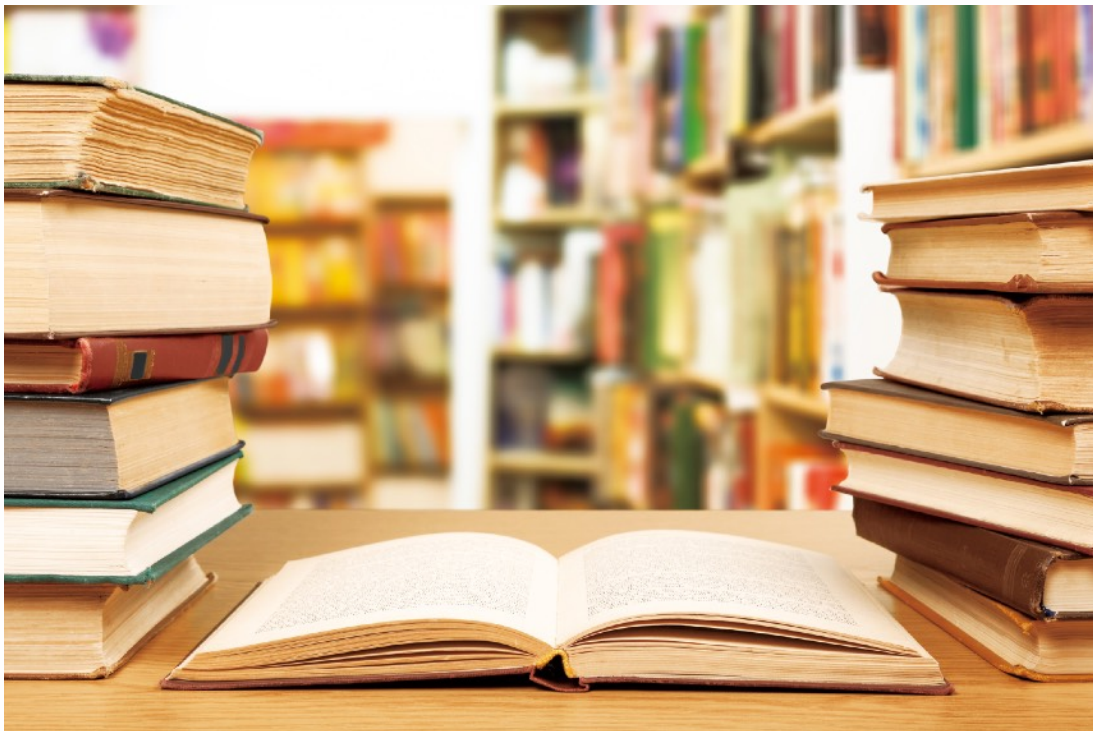
1.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우리나라 총인구, 작년(2021년)부터 감소 시작!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1) 한국인의 사회적 고립도

2)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총인구, 작년(2021년)부터 감소 시작!

통계청이 지난 2019년에 장래인구를 발표하면서 총인구가 2029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지난달(2021.12.)에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면서 초저출산, 코로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을 정점으로 2021년부터 감소해 인구 감소 시점이 8년이나 앞당겨진 것으로 발표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한국의 인구문제가 심각하다. 출생아수가 2010년 47만 명에서 2023년 23만 명으로, 13년 만에 무려 절반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으로 고령화 추세는 가속화되어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OECD에서 하위권인데, 2070년이 되면 압도적인 1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인구 감소는 직접적으로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연구소의 분석 결과, 이미 교회 학교 인구 감소 속도가 일반 학령인구보다 더 빠르고, 또 교회의 고령화 속도도 일반 사회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 교회가 인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넘버즈 128호」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토대로 향후 인구변화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교회나 기업 등 이런 인구변화에 대해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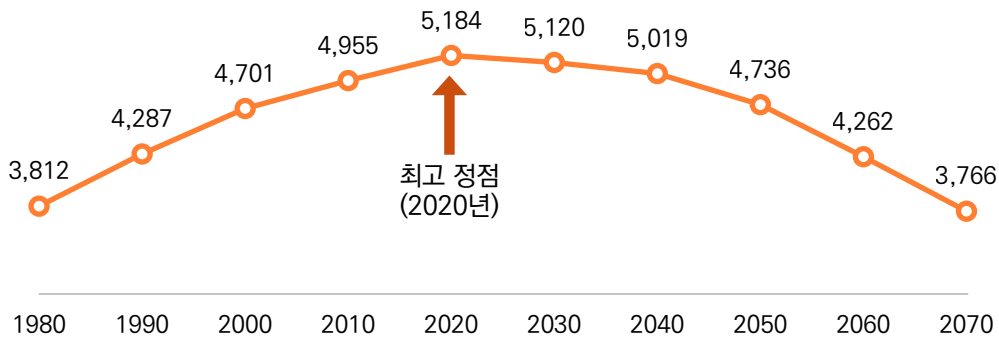
01

우리나라 총인구, 당초 예상보다 8년 앞당겨 작년(2021년)부터 감소 시작!

- ▶ 작년 말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이미 2020년에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2021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발표됐다. 2070년에는 3,76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인구 규모는 1979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2070년 기준으로 보면 약 100년 전으로 후퇴한 것이다.
- ▶ 통계청은 2019년 장래인구추계 발표에서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8년을 정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인구가 줄고 있어, 이번에 다시 총인구 감소 시점을 8년이나 앞당겨 수정 발표한 것이다.
- ▶ 총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아래에서 살펴 보겠지만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며, 해외 유입 인구는 정체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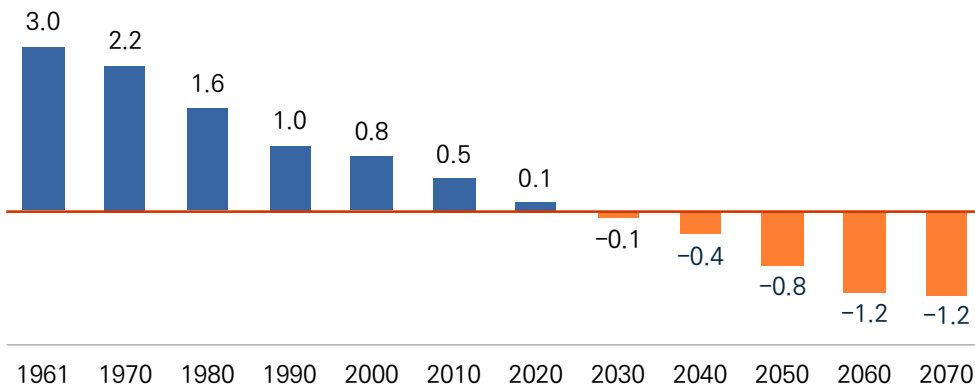
[그림] 총 인구 추이(1980~2070년)

(단위 : 만 명)



[그림] 인구성장률 (전년대비 인구 증감율, 1961~207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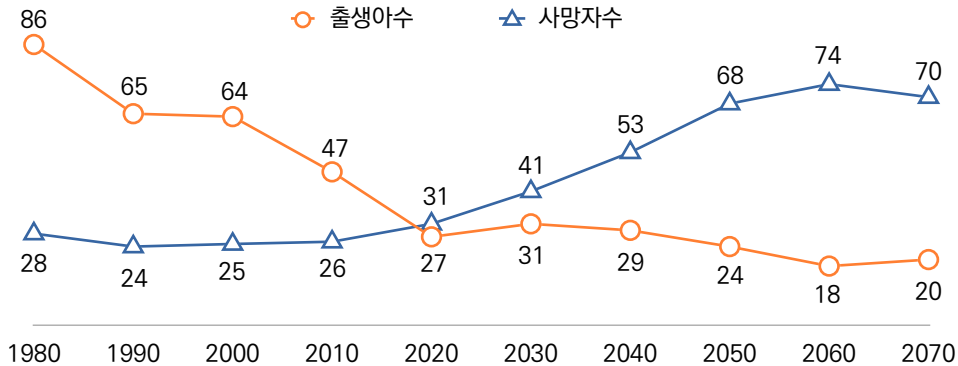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2021. 12. 8), 각 연도별 7월 1일 시점 통계임, 중위추계기준.

- ▶ 자연인구(출생아수-사망자수)는 2019년까지는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많아 (+)였으나, 2020년부터 역전돼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더 많아지는 (-)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점차적으로 그 간격이 벌어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그림] 자연증가(출생아수 vs 사망자수)

(단위 :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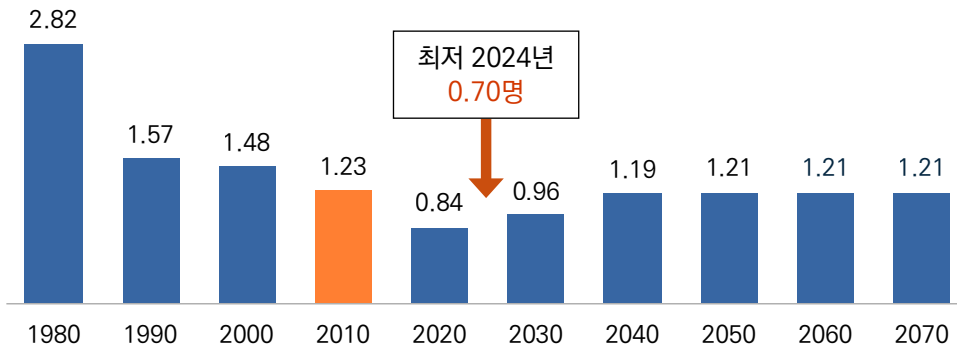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2021. 12. 8), 각 연도별 7월 1일 시점 통계임, 중위추계기준.
 **2020 이하 Data : e-나라지표, 출생사망추이, '101003호, 인구동향조사'

◎ 합계출산율, 2020년 0.84명 → 2024년 0.70명까지 떨어지다가 그 이후 반등!

- ▶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앞으로 3년 동안은 계속 하락해서 2024년 0.70명까지 내렸다가 반등세로 돌아서서 2040년 1.19명, 2070년 1.21명으로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 ▶ 합계 출산율이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는 많이 줄어서 2070년에 2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출산을 하는 가임 여성 수가 줄어드는 데서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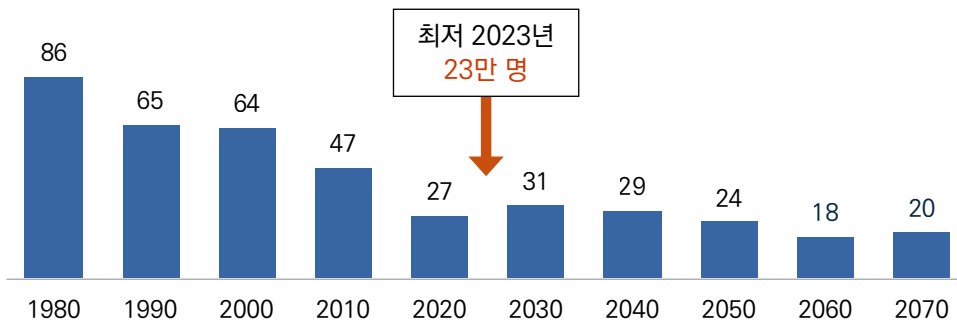
[그림] 합계 출산율**

(단위 : 명)



[그림] 출생아 수***

(단위 : 만 명)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2021. 12. 8), 각 연도별 7월 1일 시점 통계임, 중위추계기준.
 **합계 출산율 : 한 여자가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2020 이하 Data : e-나라지표, 출생사망추이, '101003호,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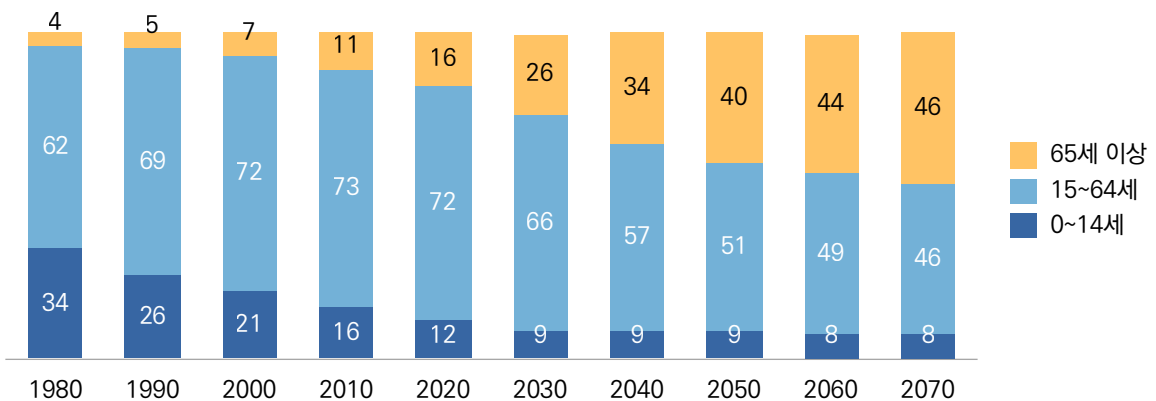
02

2070년, 유소년 1명 당 노인 6.2명!

- ▶ 인구 구성비를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에서 고령인구(65세 이상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부터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3,738만 명)에서 2070년 46%(1,737만 명)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 ▶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베이비붐 세대의 편입으로 인하여 2020년 16%에서 2070년 46%로 급증하여 50년 뒤에는 유소년 1명 당 노인이 6.2명이 되는 것으로 예측됐다.(2070년 유소년 인구 7.5%, 노인인구 46.4% 기준으로 계산함)
- ▶ 한편 유소년인구 비중은 2020년 12%(631만 명)에서 2070년 8%(282만 명)로 4%p(349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2020년 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 규모이다.
- ▶ 그 결과 2070년에는 피부양 인구(유소년 인구+고령 인구)의 비중이 54%로 생산연령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연령별 인구 구조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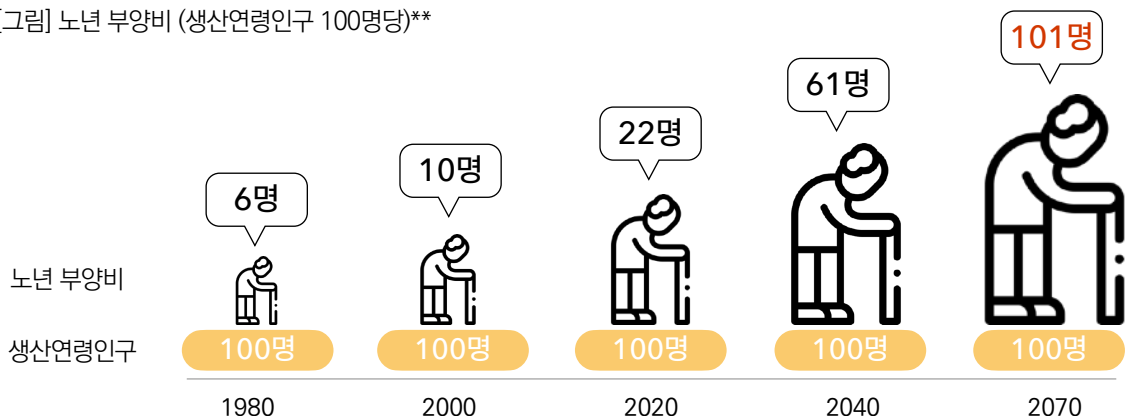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2021. 12. 8), 각 연도별 7월 1일 시점 통계임, 중위추계기준.

◎ 2070년, 생산연령 1명이 1명의 고령자 부양!

- ▶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들고 노령인구는 늘어나면서 노년 부양비도 높아질 것이다. 202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22명의 고령인구를 부양하면 됐지만, 2070년에는 10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즉 생산연령인구 1명이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해야 하는 현실이 된다.
- ▶ 사회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생산된 재화가 노인 부양에 과도하게 투입되어 사회 발전으로 재투자되기 어려운 현실을 맞을 것이다.

[그림] 노년 부양비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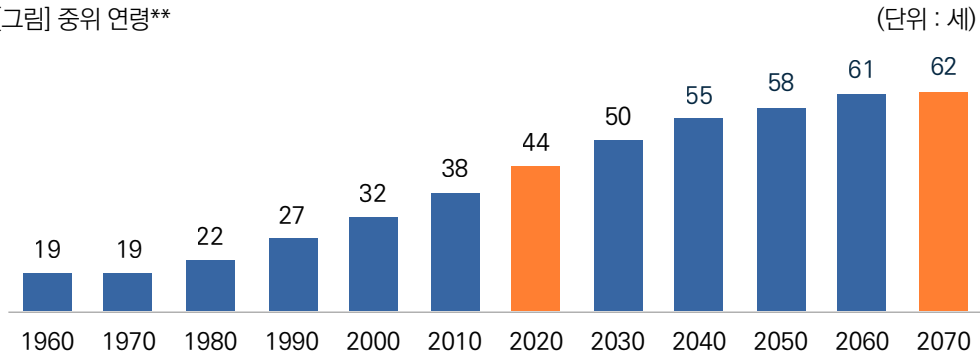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2021. 12. 8), 각 연도별 7월 1일 시점 통계임, 중위추계기준.

**노년부양비 : 생산연령인구 1백 명 당 65세 이상 고령 인구

◎ 2070년, 인구의 절반이 62세 이상!

- ▶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생산연령 인구와 유소년 인구는 감소하면서 총인구의 중위 연령은 2020년 44세에서 2070년에는 62세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 ▶ 즉 2070년에는 인구의 절반이 62세 이상이라는 뜻인데, 그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중위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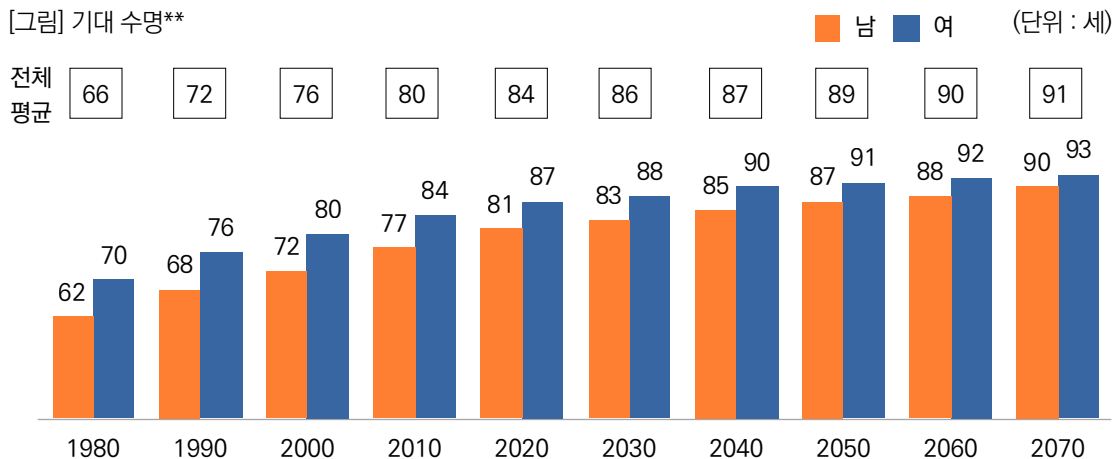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2021. 12. 8), 각 연도별 7월 1일 시점 통계임, 중위추계기준.

** 중위연령 : 총인구를 연령 순으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으로 중위연령은 7월 1일 기준임

◎ 2070년 기대수명, 91세!

- ▶ 84세인 2020년 기대 수명이 환경 및 의료 발전 등으로 말미암아 2060년에 드디어 90세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 ▶ 2020년 기준 남자는 81세, 여자는 87세로 여자가 남자보다 6살이 더 많다. 남녀간 기대수명 차이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2070년의 경우 남자 90세, 여자 93세로 3살 차이로 줄어든다.
- ▶ 여자의 경우 2040년이 되면 90세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기대 수명**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2021. 12. 8), 각 연도별 7월 1일 시점 통계임, 중위추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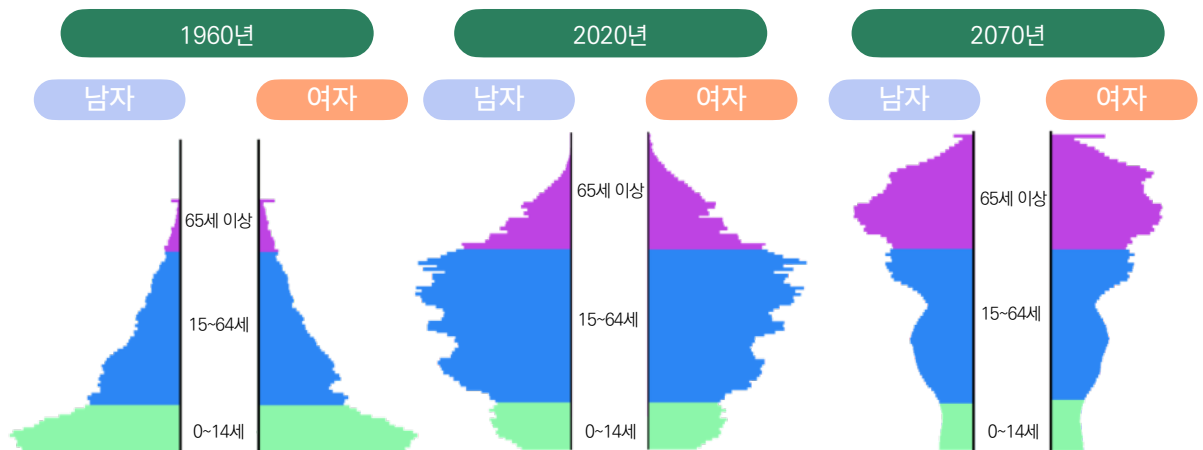
**기대수명 : 0세 출생아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

03

인구 피라미드 역삼각형으로 변화 중!

- ▶ 1960년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는 유소년인구가 가장 많은 삼각형 구조였으나, 2020년은 30~50대가 두터운 항아리형으로 변모했다.
- ▶ 2070년에는 60세 이상이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 ▶ 핵심 생산연령인 30~50대가 두터운 현재까지는 사회적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지만 이미 인구 감소 단계로 접어든 상황을 개선시키지 않는다면 2070년 이후에는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인구 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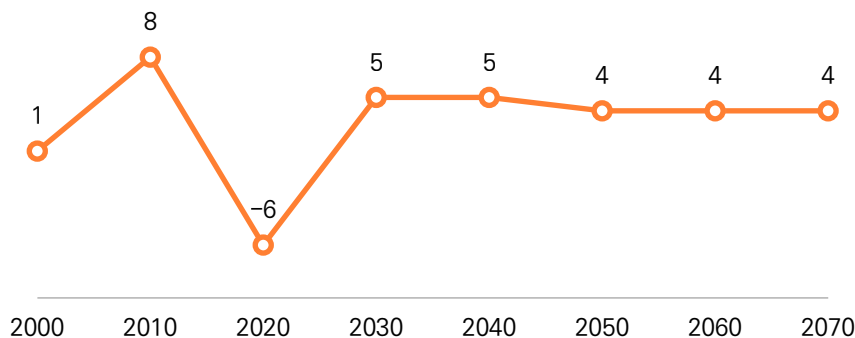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2021. 12. 8), 각 연도별 7월 1일 시점 통계임, 중위추계기준.

04

매년 4~5만 명 해외 유입 인구 순 증가 유지!

- ▶ 우리나라 인구 변화에는 출생자와 사망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해외로부터의 인구 유입과 해외로의 인구 유출도 영향을 미친다.
- ▶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인구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인구의 차이를 나타내는 인구의 국제 순이동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 순감소가 나타난 2020년을 제외하면 2020년 이후 국제순이동 인구 수는 연간 4~5만 명에서 정체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림] 인구의 국제순이동 (유입인구 - 유출인구, 단위 : 만 명)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2021. 12. 8), 각 연도별 7월 1일 시점 통계임, 중위추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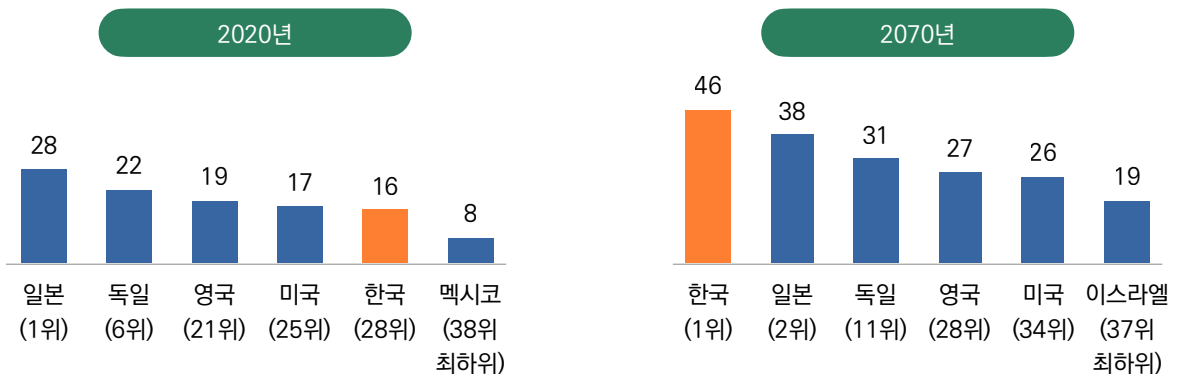
05

고령화 OECD비교, 207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압도적 세계 1위

- ▶ 총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 고령인구)를 의미하는데,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합친 총부양비는 2020년 39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70년에는 117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이는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2020년에 OECD국가에서 제일 높았으나 2070년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전환이 되고, 고령인구 비중은 반대로 2020년에 OECD국가에서 낮은 수준이었으나 2070년에는 가장 높아지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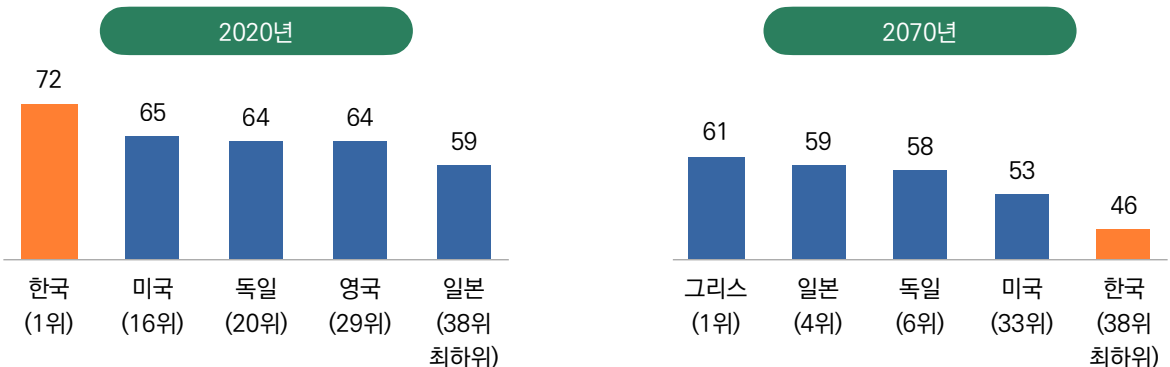
[그림] 고령인구 비율(65세 이상, OECD주요국)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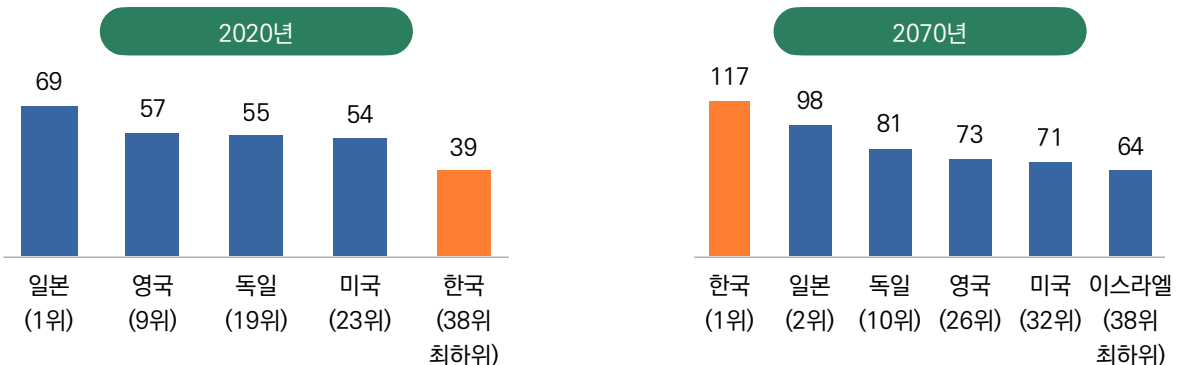
[그림] 생산연령인구 비율(15~64세, OECD주요국)

(단위 : %)



[그림] 총부양비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노인), OECD주요국)

(단위 : 명)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2021. 12. 8), 각 연도별 7월 1일 시점 통계임, 중위추계기준.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2070년 추계 인구는 3,766만 명으로 2020년보다 무려 1,418만 명 줄어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우선 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산업은 소비를 바탕으로 성장하는데 인구가 줄어들면서 생산을 유인하는 소비력도 줄어들므로 산업 발달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곧 일자리 감소, 소득 저하로 이어져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인구 감소 자체만으로도 미래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 심각한 고령화 현상이 겹치면서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이 한창 성장할 때인 1990년에는 인구 중위 연령이 27세였다. 즉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27세 이하였고 나머지 절반이 27세 이상이었는데, 2020년에는 중위 연령이 44세로 높아졌고 2070년에는 62세로 지금보다도 대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의 절반이 62세 이상인 사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인구 변화는 교회에 더 큰 위기로 다가온다.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 가운데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상은 이미 대부분의 교회에서 겪는 현상이다. 예장통합측의 교세 통계에 따르면 교단 전체 교인 수가 2011년에 285만 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239만 명으로 16% 줄어들었다. 또 주일학교는 지난 10년간 무려 42%나 줄어들었다. 교인 고령화 현상은 굳이 수치를 들이대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 현장에서 이미 체감하고 있는 현상이다. 지금 교회당이 짝 찬 교회라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인구가 27%나 줄어드는 2070년이 되면 탈종교화 시대흐름 속에 교회당에 빈자리가 대폭 눈에 띄게 될 것이다. 사라지는 교회도 많아질 것이다. 한국교회가 맞이할 현실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데서 나타난 현상이므로 전도 노력만으로는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우려가 된다.

교인 초감소 시대를 맞이하게 될 교회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목회 재구조화를 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제도, 의식 등은 모두 교회 성장시대에 형성되었으며 아직도 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 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꿈꾸며, 예배당, 교육관, 선교관 등등 교회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신축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지어놓은 건물이 텅비고 활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곧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의식 구조가 교인 감소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성장지향적 목회가 아니라 내실지향적 목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교회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것이나, 교회 유급 직원이 할 일을 교인의 자원 봉사로 메꾸는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노인 목회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 교인 가운데 노인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상황에서 노인 목회가 2030 청년 목회 못지 않게 목회의 주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역의 정년 문제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노인 수 증가, 노인 수명 연장 등으로 건강한 노인 수가 많아지고 이들이 교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시대에 70세에 직분 은퇴와 맞물려 사역을 중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비록 70세가 넘어도 교회의 주체로서 사역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컨대 65세 또는 70세에 시무장로를 은퇴하더라도 사역장로로서 계속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교회 자체적으로 노인 교인들을 위한 목회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교회가 어린이 돌봄 사역에 나서는 것도 교인 감소 시대에 취할 목회 방향이 될 수 있다. 저출산의 요인 가운데 하나가 자녀 양육 부담이라고 지적받고 있다. 교회가 유아기 및 아동기 자녀를 부모 대신에 돌봐줘서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 준다면 젊은 부부가 교회에 출석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젊은 부모가 모이면 자연스럽게 주일학교 자녀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굳이 교인 수 증가라는 목적 외에도 이런 돌봄 사역 자체가 한국 교회가 저출산 시대에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공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1.[한국인의 사회적 고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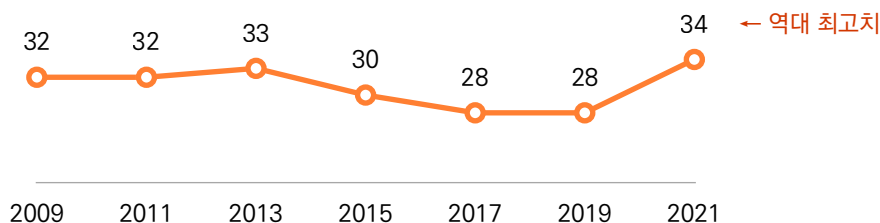
2.[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코로나 이후 국민 3명 중 1명, 사회적 고립 속에 있어!

- ▶ 사회적 고립도는 한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얼마나 촘촘하게 넓게 퍼져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통계청에서 격년으로 실시하는 사회조사에서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둘 중 하나라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로 측정한다. 즉, 개인적인 위기상황에서 인적,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받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 ▶ 사회적 고립도는 2021년 34%로 2019년 보다 6%p 증가했는데, 코로나 이후 우리국민 3명 중 1명 가량이 사회적 고립 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201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사람과의 만남이 축소되면서 사회적 고립도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사회적 고립도 (2009~2021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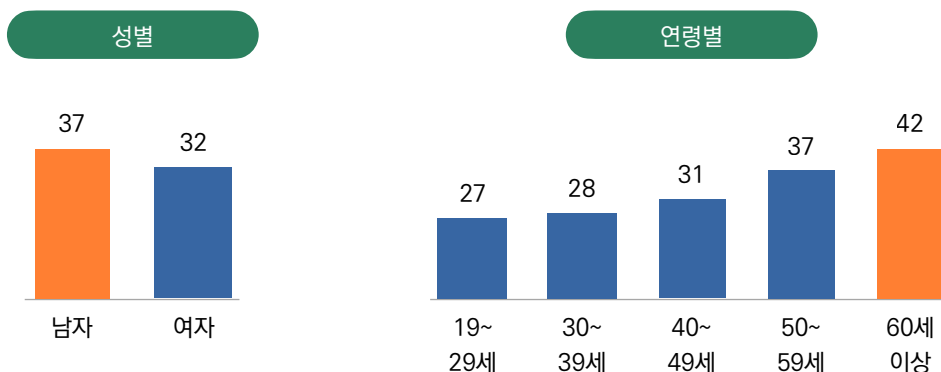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국가지표체계(K indicator), '연도별 사회조사', 19세 이상 인구 대상.

◎ 사회적 고립도, 60세 이상 고령층, 남자층에서 더 높아

- ▶ 사회적 고립도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37%, 여성 32%로 남성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 ▶ 연령별로는 고령층일수록 고립도가 높는데, 특히 직장생활의 은퇴시점인 50대 이후 위기상황에서 인적, 정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비율이 높다. 60대 이상층의 경우 42%로 나타났는데, 이는 20대에 비해 1.6 배 높은 수치이다.

[그림] 사회적 고립도_성/연령별 (2021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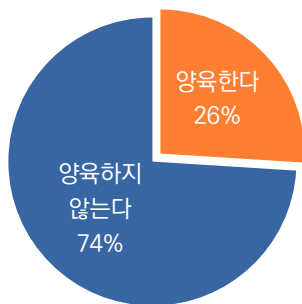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국가지표체계(K indicator) '2021년 사회조사', (전국 만13세 이상 가구원 36,000명, 202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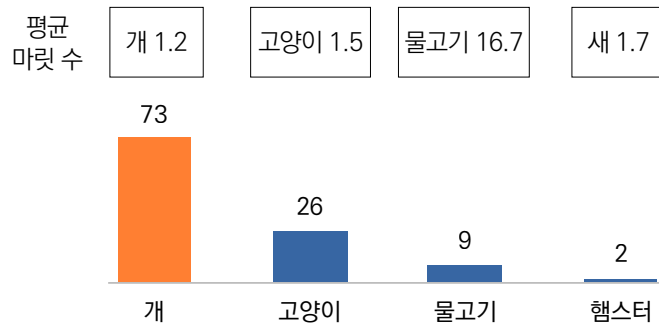
우리나라 4가구 중 1가구(26%), 반려동물 키우고 있다!

- ▶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비율은 전체 가구의 26%로 4가구 중 1가구꼴이었다.
- ▶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 중에서는 73%가 개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고양이는 26%로 나타났다.

[그림]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



[그림] 반려동물별 양육 비율(반려동물 양육자 기준, 상위 4위, %)



*자료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2021.01.06.(전국 20~64세 5,000명, 2021.09.16.~10.08., 온라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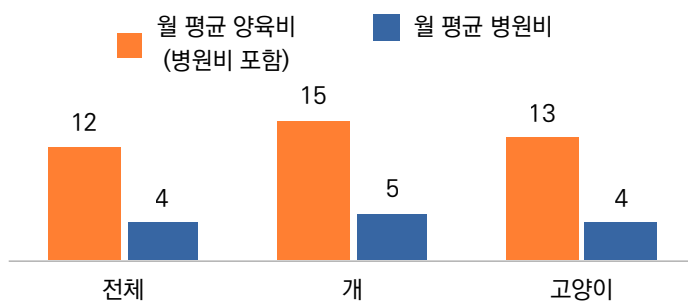
**박스는 1가정에서 양육하는 평균 반려동물 마릿수임

◎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 개 15만 원, 고양이 13만 원!

- ▶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병원비 포함)은 개 15만 원, 고양이 13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병원비는 개 5만원, 고양이 4만원으로 전체 양육비의 30%남짓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반려동물 마리당 평균 양육 비용

(단위 :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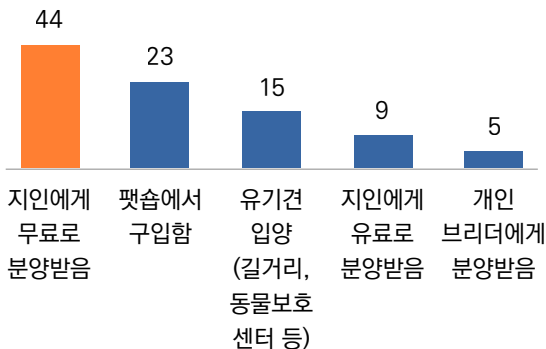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2021.01.06.(전국 20~64세 5,000명, 2021.09.16.~10.08., 온라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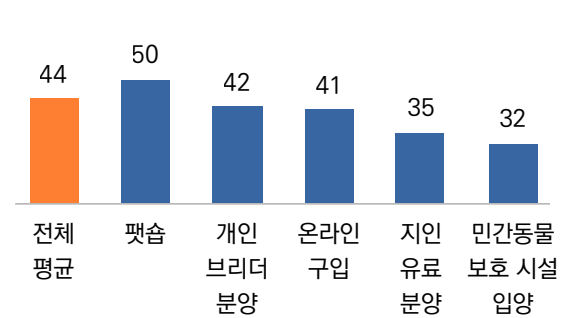
◎ (반려동물) 입양 경로는 ‘지인에게 무료로’가 44%로 가장 많아

- ▶ 반려동물 입양 경로에 대해서는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받음’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펫숍에서 구입함’ 23%로 나타났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5%)나 민간동물 보호시설(4%)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데려다 키우는 비율(6%), 즉 유기견을 입양한 비율은 전체의 15% 정도를 차지했다.
- ▶ 유료로 분양받은 반려동물 양육자의 입양 비용을 조사한 결과, 입양 비용은 전체 평균 44만 원이었고, ‘펫숍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평균 5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림] 반려동물 입양 경로 (상위 5위, %)



[그림] 입양 경로별 반려동물 입양 비용 (유료 분양자,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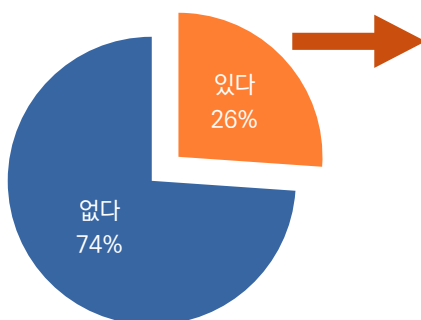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2021.01.06.(전국 20~64세 5,000명, 2021.09.16.~10.08., 온라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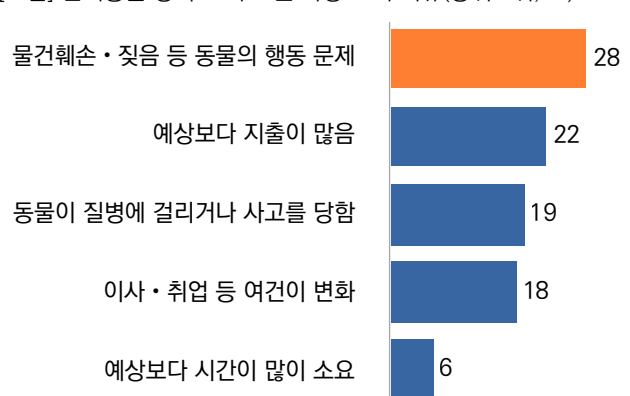
◎ 4명 중 1명 정도, 반려동물 양육 포기 생각한 적 있다

- ▶ 반려동물 양육자의 26%는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하는 것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양육 포기 또는 파양 고려 이유로는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28%로 가장 많았고,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 22%,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 19%, ‘이사·취업 등 여건이 변화’ 18% 등의 순이었다. 경제적(양육비 지출) 혹은 환경적 변수(동물의 사고/질병, 양육자의 이사, 취업 등)가 양육 포기 고려 이유로 작용하는 점은 예비양육자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그림] 반려동물 양육 포기 또는 파양 고려 경험



[그림] 반려동물 양육 포기 또는 파양 고려 이유(상위 5위, %)



*자료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2021.01.06.(전국 20~64세 5,000명, 2021.09.16.~10.08., 온라인 조사)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1월 11~13일 조사〉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479호\(2022년 1월 2주\)](#)

[〈1월 10~12일 조사〉 전국지표조사\(4개 주요 조사기관\) 리포트 제 61호\(2022년 1월 2주\)](#)

[〈1월 15-16일 조사〉 이재명 33.4% 윤석열 35.9%…2030이 또 움직였다](#)

중앙일보_2022.01.18.

[〈1월 15-16일 조사〉尹 32.8% 李 31.7% 安 12.2%…尹 2030 강세, 李 충청 선두](#)

조선일보_2022.01.18.

◎ 사회 일반

[당장 벌이 없는데 멀기만 한 ‘65살’…저소득 4050 덮친 고독사](#)

한겨레_2022.01.12.

[“식사는 하셨나요?” AI가 중장년 1인 가구에 안부전화](#)

조선일보_2022.01.14.

[초중고 학령인구 가파르게 감소...2026년에는 500만명 아래로](#)

매일경제_2022.01.13.

[지난해 국민 독서량 '뚝'…2년 전보다 성인 3권·학생 6.6권 ↓](#)

연합뉴스_2022.01.14.

[“국민연금 지금 개혁 안하면, 90년생부터 못 받을 수도”](#)

중앙일보_2022.01.14.

[여성·이주노동자·장애인… 통계로 본 불평등](#)

국민일보_2022.01.13.

[反中으로 뭉친 2030의 반란? 정용진 보이콧에 바이콧으로 맞붙은 ‘멸공 논란 2라운드’](#)

조선일보_2022.01.15.

[출생통보제 미뤄져, 한 해 4000명 이름없이 버려진다](#)

중앙일보_2022.01.15.

[작년 국내선 이용객 최다… 해외 대신 제주로 갔다](#)

국민일보_2022.01.12.

◎ 환경

[껍질 두꺼운 바나나를 왜 굳이…한국은 플라스틱 후진국? \[지구, 뭐래?\]](#)

헤럴드경제_2022.01.15.

[하루 음식쓰레기 2만t 비밀…4분의 1은 먹기도 전에 버려진다](#)

중앙일보_2022.01.17.

◎ 경제

[내 지갑을 쥐어짠다, 스크루플레이션 공포](#)

조선일보_2022.01.13.

[자영업자 41% “폐업 고려”...“거리두기 힘들다” 23%](#)

중앙일보_2022.01.17.

[작년 취업자 늘었지만, 노인일자리 90% 차지](#)

매일경제_2022.01.12.

[취업자 7년만 최대 폭 늘었지만, 자영업자는 1.8만명 감소](#)

중앙일보_2022.01.17.

[자영업자 대출 25%, 3곳 이상 금융기관서 '영끌'...평균 5.8억원](#)

연합뉴스_2022.01.18.

◎ 건강

[건강 백세인, 8가지 장수 비결... 8년 만에 조사](#)

헬스조선_2022.01.13.

[암 유병자 215만명 시대...먹는 데 답 있다](#)

연합뉴스_2022.01.15.

[2030 당뇨병 급증](#)

중앙일보_2022.01.12.

◎ 국제

[일본, 선진국서 탈락하나...1인당 GDP OECD 평균 아래로](#)

연합뉴스_2022.01.12.

[“코로나속...4초에 1명 사망·26시간마다 새 억만장자 탄생”](#)

국민일보_2022.01.17.

◎ 기독교/종교

[새해 문화선교트렌드, 취향껏 골라보게... 예배 콘텐츠 더 다양해져야](#)

국민일보_2022.01.11.

[메모리얼 테이블·손편지... ‘비대면 장례’ 유족에 세심한 위로](#)

국민일보_2022.01.17.

[예배당 없는 온라인교회... 美 대형교회의 파격](#)

국민일보_2022.01.14.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동행한빛교회, 만나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광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올림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음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선교해설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사단법인 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빛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J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장민, 송 섭, 송으뜸, 신명자,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상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ыл,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효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응림, 전치영, 정기묵,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희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준, 최준혁, 최현갑, 한병록, 한재웅,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혜숙,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신규 후원 |

삼천포교회(담임목사 공은성),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성당(주임신부 최영균)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민선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symin8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 사 | mhdata@mhdata.or.kr

| MOU 기관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